산업통상자원부 |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8. 22.(화) 19:00 < 8.23.(수) 조간 > 배포 2023. 8. 22.(화)

<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 발표 >

“한-아세안 연대구상” 경제 분야 이행을 위한 기술 전수, 전기안전 등 협력 확대

- 아세안 경제장관회의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참석
- 인니, 필리핀, 영국 등과도 공급망 및 통상현안 양자 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8. 20.(일)~22.(화) 인도네시아 스마랑에서 개최된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아세안 및 미·중·일·인도 등 주요 통상 장관들과의 양자·다자 회의를 통해 9. 6.(수)~7.(목) 자카르타에서 개최 예정인 「아세안 정상회의」의 경제 관련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역내 무역 및 사업(비즈니스) 진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우리 대표단은 「제20차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8. 22, 화)에서 2022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캄보디아)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에 따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지난해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측이 제안한 ‘한-아세안 개발 협력 공동연구’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신규로 제안한 ‘한-아세안 전기안전 협력 연결망(네트워크) 구축사업’에 대해 아세안 측의 관심과 호응을 끌어냈다. 또한, 한국과 아세안은 기술지도·표준·신생 창업 기업(스타트업) 협력 및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이행과 디지털 규범 등 기존 과제들에 대한 협력도 지속해서 추진·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 개최된 「제26차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8. 22, 화)에서 역내 무역·투자와 함께 디지털, 친환경(그린) 경제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8. 21.(월)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세계(글로벌) 복합 쟁점(이슈)에 대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고, 8. 21.(월) 오후에 개최된 제2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기반 역내 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아세안사무국 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지원조직 운영세칙(TOR)을 승인하고 신규 회원국 가입절차 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 시작을 환영하는 한편, 경제기술협력 등 이행 현안에 대한 진전사항을 점검하였다.

안 본부장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영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장관회담을 하고, 희소광물 공급망, 원전·수소 등 신(新)에너지, 전기차, 기후변화 대응 등 신(新)통상 의제(아젠다) 및 통상현안 공조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와 함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였다.

담당 부서	통상협력국 아주통상과	책임자	과 장	김민혜 (044-203-5710)
		담당자	사무관	김민섭 (044-203-571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회의별 주요 내용

< ①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 8. 22(화) 10:45-12:15 >

한국과 아세안은 현재 진행 중인 맞춤형 기술지원 사업(TASK)*, 한-아세안 표준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을 비롯한 旣추진 산업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현황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TASK; Technical Advice and Solutions from Korea) 한-아세안 기업 간 기술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여 상호 협력기회 확대 및 공급망 강화 지원

** AKSCN : ASEAN-Korea Standards Cooperation Network / 우선 비대면 네트워크 구축 → 이를 바탕으로 표준협력 실적 창출 → 추후 물리적 센터 구축 검토

이와 함께, 우리는 신규 프로젝트로 아세안 지역 내 전기안전 인프라 설치 기반 구축을 위해 전기 안전제도 컨설팅, 취약계층 전기설비 개선 등을 추진하는 「한-아세안 전기안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함께, 지난해 제안했던 수요 맞춤형 ODA 추진을 위한 「한-아세안 개발협력 공동연구」의 추진 경과를 발표하고, 아세안측의 많은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한편, 양측은 「한-아세안 FTA 공동 검토 연구」와 「한-아세안 디지털 무역 연구」를 진행하여, 그간 한-아세안 FTA가 원만히 이행되어 교역과 투자가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한국과 아세안의 디지털 규범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한편, 아세안측은 지난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 시 발표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ve)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우리측은 희소광물 공급망, 산업혁신, 그린에너지 전환, 디지털 혁신, 통상협력 확대 등 국가별 특화된 협력 전략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경제협력 방안을 소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아세안은 오는 9월 예정된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해 양측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②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 : 8. 22(화) 14:15-15:45 >

아세안과 한·중·일 13개국은 「아세안+3 경제협력 워크 프로그램 2023-2024」에 따른 그간의 경제협력 성과를 점검하였고, 고위급 정책대화 등을 통해 아세안+1 FTA 및 RCEP 이행, 중소기업 역량 강화와 디지털 경제 개발, 지속가능한 에너지·그린 경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아세안+3 경제단체들로 구성된 EABC(동아시아기업인협의회)*가 「역내 경제통합과 무역·투자 진흥을 위한 제언」을 발표하였고, 아세안의 경제 분야 씽크탱크인 ERIA(동아시아 아세안 경제연구센터)가 「중소기업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국가별 견해를 공유하였다.

* East Asia Business Council : 아세안+한/중/일 민간단체로 구성(한국은 무역협회 참여)

우리측은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무역·투자 뿐 아니라 디지털, 그린 경제 및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한-아세안 FTA, RCEP을 비롯한 역내 양·다자 FTA 활용 확대, 역내 중견·중소기업의 공급망 참여 확대 및 다자통상체제 복원 등 역내 주요 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해 아세안+3 국가들이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우리측도 관련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 ③ EAS 경제장관회의* : 8. 21(월) 17:00-18:30 >

* 동아시아정상회의(EAS, East Asia Summit) : '05년 아세안, 한·중·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 러 정상들 간 글로벌 의제 논의를 위해 출범 (총 18개국)

아세안과 한, 중, 일, 인도, 호주, 뉴질랜드, 미국, 러시아 등 17개국(미얀마 불참)은 최근 역내·세계 경제동향과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아세안사무국은 「2024년 지역 및 세계 경제 전망」을, ERIA(동아시아 아세안 경제연구센터)는 「디지털화를 통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공급망 안정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다자통상체제 복원 등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에, 우리측은 세계 경제의 다양한 복합 이슈에 대한 대응을 위해 EAS 국가 간 협력이 절실한 상황임을 강조하고, 특히 공급망 복원력 강화,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촉진 및 다자통상협력 체제 복원에 대해 공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하였다. 특히, 우리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EAS를 비롯한 다자협력 채널과 IPEF 등 국제규범 협상을 통해 다양한 이슈에 대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 ④ RCEP 장관회의 : 8. 21(월) 18:30-20:00 >

우리나라와 비롯한 아세안,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 14개 참여국들(미얀마 불참)은 올해 인도네시아('23.1.2)와 필리핀('23.6.2)의 RCEP 발효로 역내 경제통합 및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기반이 강화된 것을 환영하고, RCEP 기반 역내 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와 함께, 작년 9월 제1차 장관회의 이후 두 차례('23.2/7월)의 공동위원회 및 산하 이행위원회(지속가능성장위원회, 상품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해온 RCEP 지원조직 설치, 경제기술협력, 신규 회원국에 대한 가입 절차, 상품양허표에 대한 관세품목분류 체계(HS) 2022 전환 등의 진전사항을 점검하였다.

특히 RCEP의 효과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운영 개시를 목표로 아세안사무국 내에 RCEP 지원조직을 설치키로 하고 운영세칙(TOR) 및 자금조달 약정을 승인하였다. 회원국들은 초기 2년간 지원조직 운영 후 독립조직 전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RCEP 협정문 제2.9조(가입)에 따라 신규회원국 가입에 대한 세부 절차규칙 마련을 위한 논의가 개시된 것을 환영하고 후속 논의를 지속해 나갈 것을 각 회원국에 요청하였다.

< ⑤ 양자 통상장관 회담 >

우리측은 이번 아세안 장관회의 기간 중 영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여, 다양한 경제 및 통상 이슈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고,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영국(8. 20.(일))과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중심으로 우리의 아세안 협력 방안에 대해 소개하고, ▲한-영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고, ▲한-영 FTA 개선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양국 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필리핀(8. 20.(일))과는 ▲한-필리핀 FTA 서명 일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원전 개발, 핵심 광물 공급망 및 각종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인도네시아(8. 21.(월))와는 ▲한-인니 CEPA를 활용한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활성화를 확대하기 위해 협력을 확대하고, ▲IPEF 협상 과정에서 상호 공조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함께,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양자 통상장관회담 시, 각 국가들에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 지원 활동을 진행하였다.

< (참고) 아세안 관련 회의체별 참여국 >

구 분	참여국
ASEAN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 + 동티모르(옵저버)
ASEAN+3	**한국**, 중국, 일본
RCEP(ASEAN+5)	호주, 뉴질랜드
EAS (ASEAN+5+3)	인도, 미국, 러시아
기타 대화상대국	영국, 캐나다, EU